

# 공매도 전면금지 효과 벌써 ‘시들’ 투자자들, 산타랠리 기대감도 ‘뚝’

코스피 2.33% 코스닥 1.80% ↓  
“공매도 금지, 증시 안전핀 아나  
숏커버 종목 테마로 접근해야”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산타랠리(연말 증시 상승)가 사라졌던 지난해와 같은 양상이 올해도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3% 하락한 2443.96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1.80% 떨어진 824.37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상승분을 반납했다. 전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5.66%(134.03포인트), 7.34%(57.40포인트)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는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상승률(5.66%)로 보면 2020년 3월 25일 이후 최대다. 코스닥 지수 상승률 역시 2020년 3월 2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힌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당국의 공매도 금지로 전날 주가가 급등하자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고조됐으나 이날 주가가 내리면서 공매도 금지 효과는 단기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는 단기 ‘숏커버’ 종목을 가리는 테마로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대유행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금융시장 부양을 위해 공매도 금지가 일정 부분 ‘안전핀’ 역할을 했으나, 이번에는 과거 사례와 성격이 다르다”며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등의 이슈들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반등세가 전개되고 있어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증시에 대한 안전핀 역할로 보기보다는 오로지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숏커버 테마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코스피의 방향성이 미국 증시의 움직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간밤에 미 국제 10년물 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16.10

bp 상승한 4.669%를 기록했다. 지난 1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2회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며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도 금리를 동결하면서 긴축 사이클이 조만간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가 싹트었으나, 미국 연방정부 섣다른 및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등에 시선을 두며 경계심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김종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코스피, 코스닥지수가 급등한 것은 공교롭게 최근 금리 하락 가능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라며 “과거 세 차례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는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동행했는데 이번에도 코스피의 중장기 방향성은 미국 증시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증시 역시 금리에 높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매도 금지 조치보다 금리의 방향성이 더 중요한 국면이다”며 “확실한 금리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세적인 상승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원천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 및 보유현황)

(단위 : 십억원, %, 결제기준)

구분	'22년	상반기	하반기	'23년	9월	10월	보유잔액
주식	△11,134	△19,904	8,770	4,055	△1,712	△3,112	624,772
채권	5,821	8,375	△2,554	12,219	△637	△696	241,642
합계	△5,313	△11,529	6,216	16,274	△2,349	△3,808	866,414

\*상장주식은 장내거래 기준, 상장채권은 장내·장외거래 기준

## 외국인, 3개월 간 韓 주식 6조 팔았다

금감원, 지난달 총 3조8080억 매수  
유가증권 2.6조, 코스닥 5000억 등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난 석 달간 순매도한 규모만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시장에서도 자금을 회수하고 나선 가운데 향후 수급도 부정적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 중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순회수한 자금 규모는 총 3조8080억원이다.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112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8월(-1조1790억원), 9월(-1조7120억원)에 이어 매도세가 지속된 것은 물론 매도폭도 크게 확대됐다.

순매도 규모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각각 2조6110억원, 501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1조6000억원을 순매도했고 ▲미주(-6000억원) ▲아시아(-1000억원) ▲중동(-1000억원) 등이다.

국가별로는 노르웨이(6000억원)와

싱가포르(4000억원) 등은 순매수한 반면 영국(-8000억원)과 룩셈부르크(-5000억원) 등은 순매도를 기록했다.

10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규모는 624조8000억원이다.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2%다.

관건은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질지 여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일까지 외국인은 1조5360억원을 순매수했다. 일단 이달 들어서는 공매도 금지 효과 등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기록 중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도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신한투자증권 노동길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는 대체로 선물 대비 현물 주식의 상대적 고평가를 수반해 외국인 과 기관 투자자들이 현물 매도, 선물 매수의 매도차익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며 “공매도가 금지된 코로나19 기간 중 외국인 투자자와 증권사가 국내 주식시장의 매도 수급 주체였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실적 급락에 줍줍... 서학개미 ‘테슬라 사랑’

### 해외주식 Click

1주일간 테슬라주 2544만 弗 매수  
국내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 1위에  
아이온큐 순매수 7위→4위로 진입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사랑’이 돌아오고 있다. 테슬라가 전기차 수요 둔화, 실적 부진 등으로 주가 급락세를 이어가자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10월 31~11월 6일)에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2544만달러(333억원) 순매수했다. 지난달 총 순매수 금액도 1억9102만달러(2501억원)를 기록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1위를 차지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주에는 디렉시온 테일리 테슬라 불 1.5배(TSL.L)를 1015만달러(132억원) 사들였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테슬라의 부

진했던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도 급락세를 보였다. 특히 실적 발표 직후였던 19일에는 주가가 9.30% 가량 떨어졌고, 지난달 30일에는 200달러대가 붕괴되면서 197.36달러에 마감하기도 했다.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자 저점 매수를 노리는 서학개미들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의 주가는 급락했던 만큼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200달러대가 무너진 뒤 하루 만에 다시 200달러대로 다시 복귀했으며, 지난 2일에는 주가가 6.25% 가량 급등하기도 했다. 다만 꾸준한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부진한 실적을 만회할 수 있는 수익성 회복이 관건이다. 하지만 자동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져 있는 만큼 당분간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나영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대내 약재 영향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대외 약재는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고금

리 및 전기차 시장 내 가격경쟁 심화로 평균판매가격(ASP) 반등은 단기간 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테슬라 경영진도 자동차 가격탄력성 증가, 금리인상에 따른 자동차 구매비용 상승, 매년 전년 동기 대비 50%의 판매대수 고성장 유지에 대한 어려움 등을 언급했다는 부연이다.

서학개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은 테슬라뿐만이 아니다. 아이온큐도 주가가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주가가 10달러 내외로 떨어지면서 순매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지난주(10월 24일~30일)에 7위였던 순매수 순위는 이번 주에 1654만달러(216억)어치를 사들이면서 4위에 진입했다.

또한, 바이오 종목에 대한 선호도 발전했다. 우시애펙과 일라이릴리는 지 지난주까지 순위권 밖에 있었지만 지난주에는 각각 2012만달러(3위), 1284만달러(7위)씩 사들이면서 이름을 올렸다.

/신하은 기자 godhe@

## 키움증권, 3분기 영업익 52% ↑ ‘깜짝실적’

테마주 장세에 거래대금 증가 영향

키움증권이 잇따른 약재에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7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7%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대비 21.39% 감소한 2조1008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64.42% 증가한 2041억원으로 나타났다.

3분기 호실적은 테마주 장세가 지속되면서 거래대금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당 분기 주식수수료 수익은

국내 1045억원, 해외 292억원으로 총 133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주식수수료 수익 986억원 대비 35.7% 급증했다. 다만 파생상품 수수료 수익은 4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6% 줄었다. 기업금융 수수료 수익은 2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7% 급감했다.

최근 발생한 영풍제지 하락 관련 미수금 손실은 4분기에 반영된다. 키움증권은 전날 영풍제지 반대매매를 완료한 이후 미수금이 4333억원 남았다고 공시했다. 키움증권 측은 “영풍제지 거래 재개 후 반대매매 대상 수량이 모두 체결돼 미수금을 일부 회수했다”고 밝혔다.

/원천희 기자

## KB증권, 내일 2024 중시장 전망 세미나

오후 3시 기관고객 대상 실시

KB증권은 오는 9일 오후 3시 여의도 교직원공제회 대강당에서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2024 중국 시장 전망 및 홍콩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업데이트’ 주제로 CSOP자산운용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중국남방자산운용의 홍콩 자회사인 CSOP자산운용은 2022년 12월 아시아 최초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선물 ETF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바 있으며, 현재 홍콩 2위의 ETF 전문 자산운용사다. 특히, 홍콩 증시에 상장된 레버리지 인버스 ETF 거래량, 자산고 대비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KB증권

KB증권은 부동산 섹터 위기로 인해 중국 증시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는 가운데, 중국과 홍콩 시장을 대표하는 다섯 명의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하은 기자

## 한국투자, 카뱅 앱서 채권거래 서비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을 통해 국내채권 거래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양사간 제휴를 통해 카카오뱅크 앱 안에서 제공 중인 ‘약속한 수익 받기’ 서비스는 기존 발행어음에 이어 국내 장외채권 조회 및 거래 기능을 추가로 도입했다. 서비스를 통해 매매 가능한 상품은 국채, 지방채, 금융채, 특수채, 회사채 등이다.

표면금리가 가장 높은 톱(TOP)3 상품과 만기가 가장 짧은 톱3 상품을 따로 살펴 볼 수 있으며, ‘약속한 수익 일정’과 ‘약속한 수익 계산기’ 등 예상되는 이자 수익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했다. 채권 관련 기초 지식과 투자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상품별 최소 가입금액을 1만원으로 설정해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개인고객그룹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채권거래 경험이 많지 않았던 투자자들의 투자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